
KBS한국어능력시험의 문항 특성

박재현 · 상명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 서론

2003년 1년간의 기획 연구를 시작으로, 2004년 첫 회를 시작한 KBS한국어능력시험이 6년 동안 열다섯 차례나 시행되었다. 시행 초기에는 관심과 더불어 약간의 우려도 있었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출제와 평가의 경험은 축적되어 이제는 대한민국의 대표 국어 능력 시험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제는 KBS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 및 학교에서 선발 대상자들의 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데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08년에 국가 공인 시험으로 확정되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KBS한국어능력시험은 기존의 입사 시험에서 토익 등 영어 시험이 기준이 되고 정작 국어가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2004년 1회 시험부터 기자, 프로듀서, 아나운서는 물론 방송 경영, IT 등 전 직종의 입사 지원자에게 국어 능력 평가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였다. 이로 인해 고등학교 졸업 이후 신경을 거의 쓰지 않고 있던 ‘국어’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증폭되었고, ‘국어 공부’ 열기가 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KBS 한 기관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관과 학

교에 국어 평가의 적용이 확산되면서, 인재 선발의 기준으로서 ‘국어 능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환기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여기서는 현재까지 시행된 열다섯 차례의 KBS한국어능력시험 문항 1,500개를 분석하여, 영역별 문항의 특성, 평가 영역과 문항의 변천 과정, 최근 동향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장단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2. 문항 구성과 문항 수

KBS한국어능력시험은 7개 영역으로 구분되며, 전체 10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휘’와 ‘어법’을 합치면 30문항으로 문법 영역의 비중이 큰 편이며, ‘듣기’와 ‘말하기’ 영역을 구어(口語)의 속성을 살리기 위해 14회부터 통합하여 출제하고 있다. ‘읽기’는 문예문, 학술문, 실용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30문항으로 비중이 상당히 크다. KBS한국어능력시험의 차별화된 영역으로, 창의적 언어 사용 능력을 측정하는 ‘창안’ 영역과 국어에 대한 기본 소양과 국어생활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는 ‘국어문화’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에서는 각각 10문항씩 출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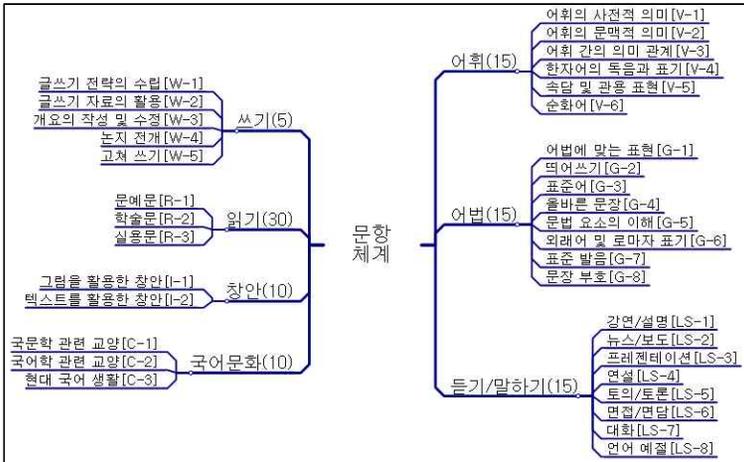
평가 영역	문항 수
어휘	15
어법	15
듣기 · 말하기	15
읽기	30
쓰기	5
창안	10
국어문화	10
합계	100

〈표 1〉 평가 영역과 문항 수

3. 표준화된 문항 유형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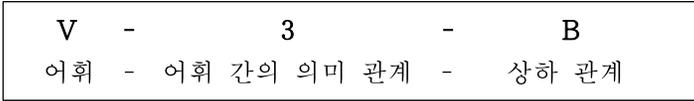
KBS한국어능력시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한 회에 출제되는 100개 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표준화된 문항 유형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출제진이 변경될 경우 문항 유형이 크게 달라져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가 지속되었는데, KBS한국어진흥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8년에 표준화된 문항 유형 체계를 연구·개발하였다.

문항 유형 체계화는 7개의 영역별로 대범주를 설정하였으며, 해당 범주 아래 다시 작은 출제 항목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문항을 유형화하였다. KBS한국어능력시험의 문항 유형 체계의 범주 구분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KBS한국어능력시험의 문항 체계

이러한 대범주는 다시 세부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데, 문항 유형 체계는 아래와 같이 삼원 체계로 되어 있다.



〈그림2〉는 어휘 영역의 세부 문항 체계를 하나의 예시로 보인 것이다.



〈그림 2〉 어휘 영역의 세부 문항 체계

4. 통합형 듣기·말하기 문항

듣기와 말하기 영역은 1회부터 각각 10문항과 5문항씩 분리되어 출제되었다. 실제 음성을 듣고 푸는 듣기 영역과는 달리, 제시문을 읽고 푸는 말하기 영역은, 읽기 문항과의 변별성 차원에서 문항의 타당성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는 하였다. 2009년 제14회부터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듣기와 말하기를 합친 통합형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듣기와 말하기의 통합형 문제란, 기존의 듣기 문제에서 음성 담화의 이해력을 측정한 후, 해당 음성 담화를 듣고, 해야 할 말의 형식이나 내용을 묻는 말하기 문제를 추가한 것이다. 즉, 하나의 음성 담화에 듣기와 말하기가 쌍을 이루어 이해력과 표현력을 측정하게 되는 것이다. 말하기 영역은 실제 담화를 생산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선택형 지필 시험의 제한점으로 인해 음성을 듣고 말할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는 능력

을 평가하는 간접 평가 방식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비록 간접 평가 방식이지만, 기존의 제시문을 읽고 푸는 말하기 시험에서, 음성을 듣고 푸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구두(口頭) 의사소통 능력의 실제적 측정에 보다 근접하도록 하였다. 듣기-말하기 통합 문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2009년 14회 10번~11번 문항]

[음성 자료]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지 17년 만에 처음으로 수능 성적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이에 대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번 공개가 비교육적인 처사라는 비판은 학력 과열 경쟁을 부추기고 전국의 고등학교가 서열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조처를 반기는 쪽에서는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와 교사들이 분발해 노력하도록 더욱 자극을 줘야 한다며 이에 학교 별로 성적을 공개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교과부는 현실적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지역 간 학교 간 학력 차를 공개하여 취약 지역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수능 성적 자료 공개를 통해 여러 가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도시 지역과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가 있는 지역의 성적은 예상대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평준화 지역 안에서 여건이 비슷한 학교들의 학력 격차가 적지 않은 점은 예상 밖입니다. 일부 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교 간 수능 평균 점수 차이가 최고 42점까지 나는 곳도 있었습니다. 교육 여건이 비슷하더라도 교사의 적극성과 열정이 학력 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성적 공개의 부작용으로 학교 서열화나 학력 위주의 과열 경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인교육을 강조한다고 해서 학력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학력은 교육의 중요한 성과지표며 교과를 잘 가르치는 것이 교사의 직분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공개 이후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고 경쟁하게 된다면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성적 공개 이후 학생들이 학력이 낮은 학교와 지역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져 이들 학교의 경쟁력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학력 지역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시급히 이뤄져야 합니다. 성적 공개 이후 우려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는 지원에 관한 세부 대책을 다 세워 놓고 난 뒤에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0. [듣기] 뉴스 논평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 ① 성적 위주의 경쟁을 부추긴다는 입장과 교육 경쟁력을 높인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 ② 성적 공개를 반기는 쪽에서는 이번 조치가 교사들의 분발을 촉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③ 교육과학기술부는 취약 지역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 ④ 평준화 지역 내의 학교 간 점수 격차는 교사의 경력이 학생들의 학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주었다.
- ⑤ 전인 교육을 강조하는 것과 학력을 중시하지 않는 것은 동일한 차원의 논의로 해석되면 안 된다.

11. [말하기] 위의 주제로 찬반 토론을 할 경우, 성적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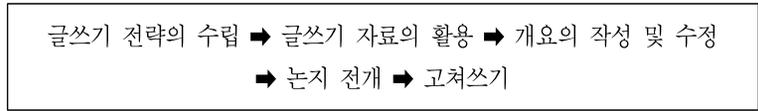
- ① “경쟁을 유도할 수 있지만, 학교 서열화나 과열 경쟁 등 부작용이 더 큽니다.”
- ② “무조건 성적 결과를 공개하여, 교사들의 의지를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발상은 무리입니다.”
- ③ “성적에 따라 정부가 차등 지원을 한다고 하여, 학생들의 성적이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④ “세부 실행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성적을 공개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⑤ “특정 지역 기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 혼란이 초래됩니다.”

듣기와 말하기 영역의 문항 유형은 대화, 토론, 연설과 같은 담화의 유형별로 구성되어 있다. 듣기와 말하기 영역은 사실적 이해, 내용의 생성

과 조직 등과 같은 과제 수행의 과정별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지만, 담화 유형의 특성에 따라 담화의 형식과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담화 유형별로 문항 유형을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5. 과정 중심 쓰기 문항

쓰기 영역 역시 ‘작문’이나 ‘논술’ 평가처럼 수험생이 직접 쓴 글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형 지필 시험의 특성으로 인해 평가의 타당성 면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간접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쓰기’ 영역에서는 글을 쓰는 일련의 과정에 동원되는 의사 결정을 문항으로 구성하여 ‘쓰기’에 필요한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선택형 쓰기 시험이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를 어느 정도는 극복하고, 쓰기 능력에 대한 간접적 형태의 평가이지만 수험생의 쓰기 관련 사고 능력에 대한 변별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판단된다. 쓰기 영역의 문항 체계는 실제 글을 쓰는 일련의 흐름을 토대로 다음의 다섯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초에 글쓰기에 대해 목적, 대상, 상황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글쓰기에 필요한 다용한 자료를 수집해서 활용하고, 개요를 작성·수정하고, 논지를 전개하고, 퇴고하는 흐름이다.



아래는 쓰기 영역 ‘개요의 작성 및 수정’의 범주에 해당하는 문제의 예시이다.

[2009년 13회 43번 문항]

위의 계획을 바탕으로 <보기>와 같이 개요를 작성하였을 때, 설명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 1. 여성 노동 시장에서의 기혼 여성의 특성 ㉠
- 2. 기혼 여성의 경제 활동 필요성
- 3. 기혼 여성의 경제 활동의 장애 요인 ㉡

III. 국내 기혼 여성의 능력 개발을 위한 여성 정책의 실태

- 1. 여성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사업의 실태
- 2. 가정·직장의 병행 지원 정책의 실태 ㉢
- 3. 근로 형태의 유연화 정책의 실태
- 4. 외국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제도의 실태 ㉣

IV. 기혼 여성의 능력 개발을 위한 여성 정책의 개선 방향

- 1. 여성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사업 확대
- 2. 가정·직장의 병행 지원 제도의 체계화
- 3. 단시간 근로 형태의 도입과 여성 인력의 활용 ㉤

V. 결론 및 제언

- ①㉠: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고학력 여성 인력의 저조한 경제 활동 참여 등을 여성 노동 시장에서 기혼 여성의 특징으로 제시한다.
- ②㉡: 기혼 여성의 취업을 위한 국가적 정책이 부족함을 내용으로 기술하여 이후의 논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 ③㉢: 현재 직장 보육 시설이나 모성 보호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하위 항목으로 제시한다.
- ④㉣: 장 제목과의 층위를 고려할 때 글 전체의 논지에 어긋나므로 제외하도록 한다.
- ⑤㉤: 여성 인력의 활용을 논의하는 것은 장 전체의 흐름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장 제목을 '여성의 능력 개발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으로 수정한다.

6. 실용문이 강화된 읽기 문항

KBS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읽기 영역은 모두 30문항으로 그 비중이 매우 크다. 읽기 영역은 크게 문예문, 학술문, 실용문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범주의 세부 항목은 <표2>와 같다.

문예문	현대시	R-1-A
	현대 소설(수필, 희곡 등)	R-1-B
학술문	인문 텍스트	R-2-A
	예술 텍스트	R-2-B
	과학 텍스트	R-2-C
	사회 텍스트	R-2-D
실용문	친교 텍스트	R-3-A
	생활 텍스트	R-3-B
	평론 텍스트	R-3-C
	시각 자료	R-3-D
	공문, 보도 자료	R-3-E

<표 2> 읽기 영역 문항 체계

학술문에서는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등 학술 분야 구분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실용문에 친교, 생활, 평론 텍스트와 시각 자료, 공문·보도자료 읽기가 포함되어 있다. 시각 자료 해석은 도표와 그래프 등 다양한 자료가 복합된 정보를 읽어 내는 능력이 중시되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고, 공문과 보도 자료 읽기는 공공 기관이나 언론사 준비생의 역량을 점검하기 위한 실제적 필요에 의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장르별 구분에 따라 세부 문항을 범주화하였는데, 읽기 영역에서 수험생의 읽기 능력을 측정하는 범주는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의 세 가지이다. '사실적 이해'란 주어진 제시문의 정보를 정확

히 파악하여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제시문에 명시적으로 드러난 정보를 여러 단서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찾아내야 한다. '추론적 이해'란 사실적 이해 과정에서 더 나아가 추론을 통하여 보다 깊고 수준 높은 수준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제시문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맥락을 통하여 저자의 의도, 인물의 심리 상태, 사건의 진행 방향 등 다양한 정보를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판적 이해'란 제시문의 정보를 찾아내고 이를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시문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제시된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장과 근거의 신뢰성, 글의 타당성 등을 따지며 읽는 과정을 포함한다. 즉, 읽기 영역은 11개의 장르별 소범주와 '사실·추론·비판'의 이해 능력의 세 가지 차원을 복합하여 출제하고 있다.

다음은 실용문 읽기 문항의 예시이다. 문항은 '인사 담당자'가 민원 질문을 해당 법령을 참조하여 회신하는 '문제 해결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여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독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읽기 영역의 경우 하나의 제시문에 두세 개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제시문에 포함된 세 문항 역시 위에서 설명한 대로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가 복합되어 있으며, 실제 휴가 일수를 산정하기 위한 계산식을 묻는 것은 실용문의 실제적 읽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2007년 9회 61-63번 문항]

[61-6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상황】 인사 담당자인 나는 육아 휴직에 대한 세부 시행 지침을 작성하던 중, 육아 휴직과 더불어 연차 유급 휴가를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해당 법령을 참조하였으나, 의문이 생겨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하였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

【질의 요지】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육아 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 유급 휴가 일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회답】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 근로 일수에서 육아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수에 대해 출근율을 산정하고, 그 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의 연차 유급 휴가 일수는 연간 총 소정 근로 일수에 대한 육아 휴직 기간을 제외한 소정 근로 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이유】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에서 연차 유급 휴가 부여 대상을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로 정하고 있는데, 1년간 8할 이상의 출근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의 총 일수에서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뺀 일수, 즉 소정 근로 일수의 8할 이상을 출근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59조 제6항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과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육아 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육아 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육아 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며, 육아 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육아 휴직 기간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는 기간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59조 제6항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과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같이 육아 휴직 기간을 연차 유급 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소정 근로 일수 계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육아 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수의 출근율이 8할 이상이면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되, ① 연차 유급 휴가 일수는 육아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수와 연간 총 소정 근로 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2007.1.26 법률 제8293호]

제59조 (연차 유급 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 휴가로 휴업한 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 2005.12.30 법률 제7822호]

제19조 (육아 휴직) ① 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 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유아가 생후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④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 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 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한다.

61. 육아 휴직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① 근속 기간에 포함되고, 소정 근로 일수에도 포함된다.
- ② 근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소정 근로 일수에는 포함된다.
- ③ 근속 기간에 포함되지만, 소정 근로 일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④ 근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소정 근로 일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 ⑤ 근속 기간에 포함되지만, 소정 근로 일수에 포함되는지는 알 수 없다.

62. <보기>의 경우 연차 유급 휴가 일수를 맞게 산정한 것은?

< 보 기 >

총무 팀의 김정희 씨는 2년 동안 근속하였다. 출산으로 올해 4개월의 육아 휴직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8개월은 정상적으로 근무할 계획이다. 연간 총 소정 근로 일수는 12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 ① (육아 휴직 기간 4개월/소정 근로 일수 8개월)×15일=7.5일

- ② (소정 근로 일수 8개월/연간 총 소정 근로 일수 12개월)×15일=10일
- ③ {(소정 근로 일수 8개월-육아 휴직 기간 4개월)/연간 총 소정 근로 일수 12개월}×15일=5일
- ④ {(육아 휴직 기간 4개월+소정 근로 일수 8개월)/연간 총 소정 근로 일수 12개월}×15일=15일
- ⑤ {(연간 총 소정 근로 일수 12개월-육아 휴직 기간 4개월)/소정 근로 일수 8개월}×15일=15일

63. ㉠과 같은 판단을 한 전제로 가장 타당한 것은?

- ① 남녀 고용 평등의 기본 정신을 반영해야 한다.
- ② 유급 휴가 제도를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 ③ 육아 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방지해야 한다.
- ④ 근로자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유급 휴가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 ⑤ 육아 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7. 창안 문항과 국어문화 문항

KBS한국어능력시험이 다른 국어 시험과 크게 차별된 부분이 ‘창안’과 ‘국어문화’ 영역의 설정이다. 기존 국어 시험에서 보편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문법 영역의 규범적 지식 측정이나, 읽기 영역의 이해 능력 측정과 같은 큰 틀을 유지하면서, KBS한국어능력시험만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고안된 것이 ‘창안’과 ‘국어문화’ 영역이다.

창안 영역을 설정한 목표는 창의적인 국어사용 능력의 측정이다. 규범적 지식을 통한 정확한 문법 능력과 주어진 읽기 자료를 꼼꼼히 분석해 내는 문서 이해 능력도 국어능력을 드러내는 전형적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텍스트 생산의 주체로서 창의적인 언어 능력 역시 필수적이라는 것이 이 영역의 설정 취지이다.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 창의적 발상을 하는 문항, 어휘의 의미 관계를 고려하여 언어를 다채롭게 활용하는 문항, 속담

이나 고사성어를 활용하는 문항, 기사나 포스터와 같이 글과 그림이 복합된 문서에 제목이나 핵심어를 찾는 문항 등이 출제되고 있다.

국어문화 영역은 문법,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기존의 전형적인 영역에 포함하기는 곤란하지만, 국어 사용자로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소양과, 국어생활과 관련되는 다양한 관련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크게 국어학과 국문학과 관련된 기본 소양을 묻는 유형과 국어생활과 관련되는 유형으로 구분된다. 국어생활과 관련되는 유형에서는 성별·연령·직업에 따른 말의 쓰임 등 사회언어학적 지식을 묻는 문항, 순화어나 신조어의 쓰임을 묻는 문항, 국어사전의 활용을 다루는 문항, 북한어의 이해에 대한 문항 등이 출제되어 일반인들의 실제 국어사용을 다양한 차원에서 측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결론

지금까지 15회 출제된 KBS한국어능력시험의 문항을 분석하고 그 특성을 논의하였다. 영역의 수와 문항 수가 많아 한 문항 한 문항을 미시적으로 살피는 것보다 영역별로 지향하는 바와 다른 시험과의 차별성을 주된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우선 표준화된 문항 체계를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은 평가의 일관성 확보와 수험생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출제자 개인의 관점에 따라 문항 체계가 크게 변경될 경우 시험의 공신력 저해와 더불어 오랜 기간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에게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문항 체계에 대해 출제진의 의견과 수험생의 반응을 적극 수렴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면 KBS한국어능력시험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선택형 지필 시험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도 바람직하다. 구어(口語)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최초부터 듣기 영역을 설

정한 점과, 읽고 푸는 문제가 아닌 듣고 푸는 문제로 변경하여 듣기·말하기의 문항 쌍을 설정하여 영역을 통합한 것도 제한적이거나 평가의 타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단순 나열적인 쓰기 문항을 글을 쓰는 일련의 흐름을 반영하여 과정 중심의 사고력 평가로 전환한 것도 실제적 국어능력 측정을 위한 진일보였다.

읽기 영역에서 실용문을 대폭 강화한 것도 시험을 활용하는 기관과 수험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험의 실제성을 높인 부분이다. 최근의 문서는 신문,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림, 사진, 그래프, 도표, 텍스트 등의 다양한 자료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제시된다. 이러한 복합 문식성 측정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기존의 ‘문학·비문학’ 이원 구도를 탈피하여, ‘시각 자료 해석’ 문항을 도입한 것과, 실제 공문서나 보도 자료 등 실용문을 읽기 제시문으로 적극 도입한 것도 실제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의미 있는 전환으로 판단된다.

언어 사용 환경의 변화는 앞으로 계속 그 속도를 더해갈 것이며, 이에 대한 국어사용 능력의 평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그 정도가 더욱 커지고 다양해질 것이다. 지금껏 이러한 사회적 동향을 면밀히 고려하여, 평가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온 점을 잘 살려, 앞으로도 KBS한국어능력시험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실제적인 국어사용 능력을 측정하여 그 활용도가 높은 시험으로 계속 발전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수험생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일과, 평가 문항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부단한 작업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KBS한국어능력시험 기출 문항(1회(2004년)~15회(2009년)), KBS한국어진흥원.